

開闔樞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¹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대학원생 ·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최동현¹ · 백유상² · 정창현² · 장우창^{2*}

A Philological Study of Previous Research on Open-Close-Pivot(開闔樞)

Choi Dong-Hyun¹·Jeong Chang-hyun²·
Baik You-sang²·Jang Woo-chang^{2*}

¹Graduate Student at 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o review the meaning of Open-Close-Pivot and its transition over time.

Methods : Annotations and explanations in chapters where the theory of Open-Close-Pivot originated from in the 『Suwen(素問)』 and 『Lingshu(靈樞)』 were examined, followed by philological examination of key physicians.

Results & Conclusions : Yang Shang Shan(楊上善) compared the 'Open-Close-Pivot' to a door. Wang Bing(王冰) explained it's movement and stillness to be the principle behind the Three-Yin-Three-Yang's threefold division. Wang Ji(汪機), in 『XuSuwenChao(續素問鈔)』 explained its physiological function as the entering and exiting of Ying Wei(營衛), and its scope to be exterior, interior, and center. Ma Shi(馬蒔) stratified it similar to 『Shanghanlun(傷寒論)』's six stages, while Wu Kun(吳崑) categorized Shaoyang(少陽) as being in-between exterior and interior. Zhang Jing Yue(張景岳) suggested a standard for the entering-exiting and exterior-interior-center concepts of the Open-Close-Pivot. Zhang Zhi Cong(張志聰) argued a theory of Open-Close-Pivot that emphasized the meaning of Three-Yin-Three-Yang, while Gao Shi Zong(高士宗)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 Close, Pivot and the functioning process. Shi Shou Tang(石壽棠) explained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in the actions among Open-Close-Pivot with a focus on Pivot. Ke Qin(柯琴) applied Open-Close-Pivot to 『Shanghanlun(傷寒論)』 and used it as the basic principle to the Six Channel Ground Theory(六經地面說), also clinically applying it in the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of the Six Channel patterns.

Conclusions : Counting based word embedding methods seems to be more effective than

Key words : Open-Close-Pivot(開闔樞), Gate-Close-Pivot(關闔樞), Three Yin Three Yang(三陰三陽)

* Corresponding Author : Jang Woo-ch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 82-2-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본 논문은 동일 제목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석사학위 논문을 학회지 형식에 맞추고 일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음.

Received(April 22, 2019), Revised(May 3, 2019), Accepted(May 3,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素問·陰陽離合論』은 三陰三陽에 대한 초기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三陰三陽 학설의 경우 그 연원을 알기 어렵고 비슷한 시기의 周易과도 체계가 달라 연구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¹⁾ 따라서 三陰三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고 다양한데 이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素問·陰陽離合論』의 開闔樞를 중심으로 보는 것과 『運氣篇』의 六氣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있다. 『運氣篇』의 경우 내용이 상세하고 비교할 것이 많아 연구가 활발한 반면 『素問·陰陽離合論』의 開闔樞는 그 내용이 심오하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후학들이 연구하기에 쉽지 않았다. 그러나 歷代醫家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연구가 되어 오늘날에는 여러 편의 연구 논문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歷代醫家들의 開闔樞論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어 歷代 開闔樞論의 발전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歷代 開闔樞論은 『素問·陰陽離合論』에 대한 주석에서 시작하며 『素問·陰陽離合論』의 내용은 離合論, 開闔樞論, 根結論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開闔樞에 대하여 『素問·陰陽離合論』안에서만 내용을 살펴본다면 내용이 매우 간략하고 각각의 논점이 서로 연결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러 醫家들이 『內經』의 다른 篇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는데, 그중 開闔樞와 가장 많이 언급되는 篇은 『靈樞·根結』과 『素問·皮部論』이 있다. 본 논문도 『素問·陰陽離合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靈樞·根結』과 『素問·皮部論』을 함께 참고하여 開闔樞論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본론

1. 선행 연구

1) 三陰三陽의 유래에 대하여 박찬국, 정창현은 『周易』 六爻와 三陰三陽의 연관성을 논하였다. 김도훈은 『周易』의 卦象에서 三陰三陽의 少-壯-老의 理論을 근원으로 보았다. 廖育郡은 원시적 三陰三陽說을 『周易·說卦』의 三男三女說에 그 근원을 두었다. 李瑞는 韓醫學 이외의 분야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開闔樞論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하였고 최근까지도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開闔樞論에 대한 초기의 연구자인 黃儒珍²⁾은 新校正에 인용된 『丘墟』에 ‘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을 비판하였다. 이에 王冰의 開闔樞論이 올바르며 陽明과 厥陰은 少陽과 太陽, 少陰과 太陰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傷寒論』의 傳變에 대한 조문을 고찰하여 厥陰爲樞라고 보는 관점을 비판하였고, 『難經』의 七難을 인용하여 三陰三陽次序는 太陽·陽明·少陽, 太陰·少陰·厥陰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60년대에 이미 開와 關의 논쟁, 少陰爲關·厥陰爲樞에 대한 논쟁, 開闔樞와 『傷寒論』과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開闔樞에 대한 연구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危北海³⁾는 黃儒珍의 說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논문을 내어 開闔樞로 『傷寒論』의 생리·병리를 상세히 서술하였고, 楊力⁴⁾은 標本中氣와 開闔樞를 함께 엮어서 『傷寒論』의 六經氣化를 설명하였다. 徐培平, 符林春⁵⁾은 『傷寒論』에서 營衛論이 太陽病 범주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六經으로 확대하면서 開闔樞의 작용이 營衛를 조절한다고 보았다. 治法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李宇航⁶⁾은 四逆散과 開闔樞의 연계를 통한 임상응용을 논의하였고, 胡显宜와 汪世平⁷⁾은 開闔樞論의 생리·병리의 의미를 확장하여 開闔樞를 治法과 연계하였다. 이에 三陽의 開闔樞는 發散之法, 長氣之法, 和氣之法으로, 三陰의 開闔樞는 敷布·運化之法, 收藏之法, 通結開格·交通水火·平陰秘陽之類로 설정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小柴胡湯을 이용한 치료나 당

2) 黃儒珍. 谈谈三阴三阳与开闔樞 问题. 上海中医杂志. 1962(10). pp.8-10.
3) 危北海. 对开闔樞問題的商榷. 浙江中医杂志. 1963(5). pp.23-27.
4) 楊力. 标本中气、开闔樞理论在『伤寒论』中的应用. 天津中医. 1987(8). pp.18-19.
5) 徐培平, 符林春. 伤寒六经营卫观. 安徽中医学院学报. 2000. Vol. 19(6). pp.7-9.
6) 李宇航. 论四逆散开闔以运枢机. 北京中医药大学学报. 1998. Vol. 21(4). pp.11-13.
7) 胡显宜, 汪世平. 试论『内经』开闔樞学说的临床价值. 2002. Vol. 20(6). 四川中医. pp.16-18.

노병,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開闔樞論을 응용하는 사례도 있어 중국의 경우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開闔樞論을 응용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太素』를 통해 ‘開’를 ‘關’으로 보는 문헌학적 연구도 많이 하였다. 李鋤⁸⁾는 蕭廷平의 說과 開와 闔은 동사인데 樞는 명사인 점, 『靈樞·根結』과 『素問·皮部論』에서 ‘關’의 해석에 대한 고찰, 고대에 關을 開로 誤記할 가능성을 근거로 내세워 關闔樞論의 문헌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徐湘亭⁹⁾ 또한 이와 유사하게 『太素』와 『靈樞·根結』과 『素問·皮部論』에 대한 문헌학적인 고찰을 통해 關闔樞說을 지지하면서 ‘關’으로 보아도 『傷寒論』의 내용과 위배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王希哲과 李宝丽¹⁰⁾는 開闔樞와 關闔樞를 『傷寒論』의 관점으로 풀이했는데 開闔樞를 動적인 개념으로 보고 『傷寒論』의 病理에 배속하고, 關闔樞를 靜적인 개념으로 보고 『傷寒論』의 생리에 배속하여 ‘開’와 ‘關’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戴銘¹¹⁾은 楊上善의 說을 적극 수용하여 關闔樞를 三陰三陽간의 系統을 內門과 外門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작용으로 보았다. 이에 陰陽의 升降出入은 關闔樞의 공동협동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는데 다른 일반적인 開闔樞說은 『傷寒論』의 연구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이라고 부정하였다. 胡显宜과 汪世平¹²⁾은 王希哲과 李宝丽的 說과 유사하게 ‘關闔樞’를 명사로 해석하여 三陰三陽의 상호관계를 밀접하게 이어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반대로 ‘開闔樞’는 동사의 의미로 해석하여 生理功能을 강조한 표현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비록 ‘關’의 뜻이 근원에 가까우나 ‘開’ 또한 역대 의가에 의해 임상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았다.

국내 연구의 경우 박찬국¹³⁾의 三陰三陽에 대한 논문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開闔樞에 대한 기본 이론 연구의 경우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이론을 계승하면서 이를 토대로 개념을 확장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각 연구자의 독자적인 개념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박찬국은 三陽經의 開闔樞 運動을 太陽(開)-消耗, 少陽(樞)-調節, 陽明(闔)-吸收로 정의하고 三陰經의 開闔樞 運動에 대해서는 太陰(開)-消費, 少陰(樞)-推動, 厥陰(闔)-貯藏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素問·陰陽離合論』을 토대로 開闔樞와 三陰三陽經絡의 공간적인 개념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몇 편 소개해 본다면, 임진석¹⁴⁾은 開闔樞를 三陰三陽의 기능이나 생리적 특성을 나타낸 개념이 아닌 구역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생각하였다. 기존 의가들이 『傷寒論』에 근거하여 表, 裏, 半表半裏의 개념을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素問·陰陽離合論』을 토대로 體表의 表裏구조를 강조하였다. 정창현¹⁵⁾ 또한 임진석의 의견과 유사하게 三陰三陽의 구조는 표리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헌학적인 증거와 경락 구조적인 증거를 밑바탕으로 ‘少陰爲闔 厥陰爲樞’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開闔樞의 작용을 三陰三陽의 배치에 따른 精神 및 氣血의 升降出入 모형과 연결하여 입체적인 도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김준기와 최달영¹⁶⁾은 『易緯乾鑿度』에서 朱子가 注釋한 부분¹⁷⁾을 인용하여 陽進陰退說을 주장하였다. 陽進은 少陽->太陽(7->9)이며, 陰退는 太陰->少陰(6->8)이 되어 少陽

8) 李鋤. “开、闔、樞”与“关、闔、樞”辨. 上海中医药杂志. 1980(03). pp.33-35.
9) 徐湘亭. 论“素问”开闔樞与“太素”关闔樞在意义上的差别. 江苏中医杂志. 1983(2). pp.4-5.
10) 王希哲, 李宝丽. “开闔樞”与“关闔樞”在《伤寒论》中的运用. 河南中医. 1995(6). pp.332-333.
11) 戴銘. 楊上善“太素”“门-关闔樞”理论初探. 上海中医药杂志. 2000(1). pp.19-21.
12) 胡显宜, 汪世平. 『内经』开闔樞考辨. 四川中医. 2002. Vol.20(8). pp.15-17.

13) 박찬국. 『소문(素門)』 「음양이합론(陰陽離合論)」을 중심으로 한 삼음삼양(三陰三陽)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2. Vol.6. pp.131-137.
14) 임진석. 음양이합론(陰陽離合論)의 삼음삼양(三陰三陽)과 개합추(開闔樞).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8. Vol.11(2). pp.15-26.
15) 정창현. 삼음삼양(三陰三陽)의 개합추(開闔樞)에 대한 신지견(新知見) - “궐음위추(厥陰爲樞), 소음위합(少陰爲合)”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Vol.16(2). pp.275-279.
16) 김준기, 최달영. 三陰三陽 表裏 關係의 構成原理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5 Vol. 16(1). pp437-450.
17) “凡此策數, 生於四象, 蓋河圖四面, 太陽居一而連九, 少陰居二而連八, 少陽居三而連七, 太陽居四而連六.” 朱熹. 易學啟蒙. 서울. 예문서원. 1994. p43.

->太陽->陽明, 厥陰<-少陰<-太陰의 형태로 배치하면 表裏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후 十二經脈 流走順序에 따라 배치한 것을 上下同法이라고 하여 이를 開闔樞의 구조로 설명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기존 의가들의 開闔樞論을 뛰어 넘어 각 연구자의 독창성이 강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開闔樞 간의 관계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주로 開闔樞의 門의 조합으로 설명한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三才의 관점으로 많이 해석하였다. 장우창¹⁸⁾은 天地人 三才적 구조를 통해 三陰三陽을 세 개의 표리관계로 분석하였는데 開闔樞에 대하여서는 一體 三用의 관계로 보았다. 조용주¹⁹⁾는 開闔樞를 三元運動으로 발생하는 遠心력과 求心력과 轉化力으로 구성된 三才적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開闔樞의 三元運動을 臟腑相關 및 經絡流注와 통합하여 開放系, 閉鎖系, 調節系라고 하였다.

『傷寒論』과 開闔樞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柯琴의 六經地面說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장우창이 柯琴의 說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다진 이후 이상협은 開闔樞의 관점으로 柯琴의 說을 설명하였다. 『太素』에 의한 開闔樞說 또한 활발하게 연구되었는데 開闔樞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과 문헌학적 고찰이 이용범, 김인락, 윤창현, 임진석에 의해 거의 완성되었으며 특히 이용범의 경우 한의학적 개념에 머물렀던 開闔樞의 개념을 三陰三陽의 表裏 조합과 臟腑相關의 원리를 통해 생리·병리적인 관점을 더 세밀하게 연구하여 開闔樞의 임상응용을 제시하였다.

2. 서지학적 고찰

대부분의 역대 의가들은 王冰의 著作을 따라 關이 아닌 開闔樞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楊上善의 『太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18) 장우창. 『소문(素問·음양이합론(陰陽離合論))의 의학사상(醫學思想)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삼재적(三才的)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Vol.21(3). pp.83-90.

19) 조용주, 김진주. 개합추(開闔樞) 기능에 관한 연구(研究).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08. Vol.25(1). pp.19-37.

서 開보다는 關이 더 정설로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서지학적 고찰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첫째, 太素가 王冰本보다 시기가 100년 정도 빨라 더 원형에 가깝다는 점. 둘째, 開는 關을 간략히 쓴 ‘關’를 필사로 옮기면서 생긴 誤記라는 주장. 셋째, 『太素』 蕭延平本에 의한 서지학적 검증. 넷째, 北宋 林億 등이 “按『九墟』²⁰⁾ ‘太陽爲關, 陽明爲闔, 少陽爲樞. ……’ 『甲乙經』同.”이라고 한 점. 다섯째, 『素問·皮部論』이나 『靈樞·根結』에서 開闔樞가 명사로만 구성되어야 문맥에 어울린다고 하는 주장. 여섯째, 開闔樞의 생리병리상의 특징을 보았을 때 開보다는 關이 더 어울린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용범²¹⁾은 『黃帝內經素問校釋』, 『素問補識』, 『中國經絡文獻通鑿』, 『針灸學』, 『新編黃帝內經綱目』 등 최근 나오는 서적들의 대부분이 ‘開’를 ‘關’으로 고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최소한 서지학적 관점에서는 ‘開’가 아닌 ‘關’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역대 의가들이 開闔樞로 설명하였다고 해서 그 내용이 틀렸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關’과 ‘開’에 대하여 ‘빗장’ 또는 ‘열다’로 직역하기보다 각 의가들마다 고유의 해석을 덧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본 논고에서도 의가들마다 사용 용어가 달라 한 가지만 선택하여 표현하기에 제약이 있어 의가들의 견해에 따라 開闔樞와 關闔樞를 혼용하였다.

3. 초기 형태의 開闔樞論

(1) 楊上善

楊上善은 『太素 卷第五·人合·陰陽合』에서 關闔樞를 ‘門’에 비유하여 門關, 門闔(門扉), 門樞로 나누었다. 三陽은 外門에, 三陰은 內門에 비유하였는데, 각각의 작용에 대해서 太陽의 關은 ‘主禁’, 陽明의 闔은 ‘主關閉’, 少陽의 樞는 ‘主轉動’, 太陰의 關은 ‘主禁’, 厥陰의 闔은 ‘主關閉’, 少陰의 樞는 ‘主動轉’이라고 하였다. 이는 문자의 뜻으로 關闔樞의 기능을 설

20) 靈樞經의 傳本중 하나이다.

21) 이용범. 관합추(關闔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Vol.17(1). pp.218-225.

명하려고 한 것으로 關은 빗장, 闔은 문짝, 樞는 지도리에 비유하였다. 더불어 經絡과 臟腑의 개념을 더해 開闔樞의 작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²²⁾²³⁾

『太素 卷第十·經脈之三·經脈根結』²⁴⁾에서는 關闔樞에 대하여 병리적인 관점을 논술하였다. 關闔樞의 다른 표현인 ‘關折’²⁵⁾²⁶⁾, ‘闔折’²⁷⁾²⁸⁾, ‘樞折’²⁹⁾³⁰⁾에 대하여 註解한 것을 보면 『太素 卷第五·人合·陰陽合』을 토대로 서술한 것을 알 수 있다. ‘關折’은 太陽의 暴病과 太陰의 洞洩을 빗장처럼 禁해주는 것으로, ‘闔折’은 正氣 소모로 인한 陽明의 痿厥과 厥陰

의 筋氣緩縱에 대해 문짝을 이용하여 正氣 소모를 막음으로써 대처하는 것으로, ‘樞折’은 少陽主筋하여 골절을 잡아 움직이게 하는 것과 少陰이 脈流를 轉動시키는 것으로 보아 움직임을 관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太素 卷第二十五·傷寒·熱病決』³¹⁾³²⁾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존재한다. ‘陽明主肉’, ‘少陽主骨’과 같은 표현은 ‘經脈根結’의 표현과 유사하며 關闔樞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熱病決」을 註解하였다고 보인다. 이상 楊上善의 說을 종합해 보면 關闔樞에 대하여 문자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經絡과 臟腑의 생리병리를 더하여 註解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王冰과 비교하면 비교적 선명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편으로 후대의가들도 문자적 해석에 기반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2) 王冰

王冰의 경우 『素問·陰陽離合論』에서 ‘離’는 三으로 分化하는 것으로, ‘合’은 表裏관계를 통한 臟腑의 配合으로 보았다. 이에 開闔樞는 三陰三陽이 三으로 分化과정 중에 氣의 多少가 달라지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았다. 開闔樞에 의한 氣의 多少는 動과 用을 일으켜 각각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開는 ‘司動靜之基’, 闔은 ‘執禁固之權’, 樞는 ‘主動轉之微’하여 각각의 作用에 의해 三變하는 것으로 보았다.³³⁾ 이는 配合의 原理보다는 分化의 原理에 가까운데 비교적 의미가 명확한 闔과 樞에 비해서 開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素問·皮部論』에서 太陽의 ‘關

- 22)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106. “三陽離合爲關闔樞, 以營於身也. 夫爲門者, 其有三義. 一者門關, 主禁者也. 膀胱足太陽脈主禁津液及於毛孔, 故爲關也. 二者門闔, 謂是門扉, 主關閉也. 胃足陽明脈, 令眞氣止息, 復無留滯, 故名爲闔也. 三者門樞, 主轉動者也. 膽足少陽脈主筋, 綱維諸骨, 令其轉動, 故爲樞也.”
- 23)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107. “三陽爲外門, 三陰爲內門, 內門亦有三者. 一者門關, 主禁者也. 脾藏足太陰脈主禁水穀之氣, 輸納於中不失, 故爲關也. 二者門闔, 主關閉者也. 肝藏足厥陰脈, 主守神氣出入通塞悲樂, 故爲闔也. 三者門樞, 主動轉也. 腎藏足少陰脈主行津液, 通諸經脈, 故爲樞者也.”
- 24) 『靈樞·根結』에 해당한다.
- 25)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255. “太陽主骨氣爲關. 故骨氣折, 肉筋內敗. 癩, 音獨, 胎生內敗曰癩. 內筋內敗, 故暴病起, 暴病起者, 則知太陽關折, 所以調太陽也.”
- 26)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257. “太陰主水穀以資身肉, 太陰脈氣關折, 則水穀無由得行, 故曰倉無輸也. 以無所輸, 膈氣虛弱, 洞洩無禁, 故氣不足而生病也.”
- 27)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256. “陽明主肉主氣, 故肉氣折損, 則正氣不能禁, 即身痿厥, 痿而不收, 則知陽明闔折也.”
- 28)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257. “厥陰主筋, 厥陰筋氣緩縱, 則無禁喜悲.”
- 29)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256. “少陽主筋, 筋以約束骨節, 骨節弛無所約束, 故骨搖. 骨搖, 故知少陽樞折也.”
- 30)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258. “少陰主骨, 骨氣有損, 則少陰之脈不流, 故有所結不通. 結即少陰絡結也.”

31) 『素問·熱論』에 해당한다.

32)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pp.735-737.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腰脊皆痛.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於目, 故身熱而鼻乾, 不得臥. 三日少陽受之, 少陽主骨, 其脈循脇絡於耳, 故胸脇痛耳聾. 四日太陰受之, 太陰脈布胃中, 絡於噎, 故腹滿而噎乾. 五日少陰受之, 少陰脈貫腎絡肺繫舌本, 故口熱舌乾而渴. 六日厥陰受病, 厥陰脈循陰器而絡於肝, 故煩滿而囊縮.”

33) 陆费逵 总勘. 四部备要·内经素问. 上海. 中华书局. 1989. p.74. “離謂離別應用, 合謂配合於陰, 離別則正位於三陽, 配合則表里而爲臟腑矣. 開闔樞者, 言三陽之氣多少不等, 動用殊也. 夫開者所以司動靜之基, 闔者所以執禁固之權, 樞者所以主動轉之微, 由斯殊氣之用, 故三變之也.”

樞'에 註를 달기를 '關司外動 以靜鎮爲事'라고 하여 『素問·陰陽離合論』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참고하면 開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外動을 말아 鎮靜시키는 일을 하는 관리자의 의미로 開를 설명한 것이다. 太陰의 '關蟄' 또한 '關閉蟄類'라고 하여 이와 유사한 뜻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開는 글자의 뜻과는 달리 '靜鎮'과 '關閉'의 뜻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 후대의 의가들 또한 '열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닫다'라는 뜻으로도 開를 보았다. 종합해 본다면 王冰의 開闔樞에 대한 설명은 전체적으로 配合의 원리보다 分化의 원리에 가까우며 『太素』와 그 의미가 대동소이하다. 약간의 차이라면 『太素』가 門의 구성 요소로서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³⁴⁾과 비교해볼 때 조금 더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明代 中期까지의 開闔樞論

王冰이후 開闔樞論은 한동안 연구가 미비하여 몇몇 학자들이 간략하게 언급한 정도였다. 許叔微가 宋代에 편찬한 『傷寒九十論』에서는 開闔樞에 대하여 언급은 있었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³⁵⁾, 宋代 王維一이 편찬하고 明代 王九思 등이 편집한 『難經集注』에서는 王冰의 開闔樞論을 그대로 인용하였다.³⁶⁾ 元代的 滑壽가 편찬한 『讀素問鈔』³⁷⁾에서도 기본적인

인 開闔樞의 정의는 王冰의 의견을 따랐으나 明代에 汪機가 『讀素問鈔』에 補註를 한 『續素問鈔』에서는 滑壽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汪機 자신의 開闔樞說을 추가로 補入하였다. 明代 徐春甫가 편찬한 『古今醫統大全』에서도 王冰의 開闔樞論을 그대로 인용³⁸⁾하였고 明代 沈子祿과 徐師魯가 편찬한 『經絡全書』에서는 “開, 司動. 闔, 司靜. 樞, 司動靜. 言氣之不等也.”³⁹⁾라고 하여 王冰의 說을 약간 변형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보면 明代 중기까지 開闔樞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후 明代 후기에서 清代 초기에 이르러서는 開闔樞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해진다. 그 중 明代 말기의 馬蒔의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와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吳崑의 『黃帝內經素問吳注』, 張景岳의 『類經』은 王冰의 說을 벗어나 독자적인 시각으로 開闔樞를 보기 시작한 시발점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선 이들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汪機의 『續素問鈔』를 먼저 살펴본 후 馬蒔, 吳崑, 張景岳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汪機

汪機의 『續素問鈔』는 1519년에 간행된 책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판본은 明·嘉靖五年丙戌(1526) 程圻刻本이다.⁴¹⁾ 이는 목각본으로 수량도 많지 않고 글자가 희미하여 현대에는 1921년에 간행된 石竹山房 石印本을 明本과 함께 底本으로 삼아 교정하여 책을 출판하게 된다. 汪機는 『續素問鈔』에서 滑壽가

34) 楊上善은 『太素 卷第五·人合·陰陽合』에서 關闔樞를 '門'에 비유하여 門關, 門闔(門扉), 門樞로 나누었다.

35) 王国辰 主编. 許叔微医学全书·伤寒九十论. 北京, 中国医药出版社. 2006. p.78. 『傷寒九十論·太陽陽明合病證』. “故此篇因黃帝問三陰三陽之離合, 岐伯自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而推. 且以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關, 厥陰爲闔, 少陰爲樞, 六經不得相失, 則其序有授矣. 不特此也, 以六氣在天而考之, 厥陰爲初之氣, 少陰爲二之氣, 太陰爲三之氣, 少陽爲四之氣, 陽明爲五之氣, 太陽爲六之氣, 此順也. 逆而言之, 則太陽而後陽明, 陽明而後少陽, 少陽而後太陰, 太陰而後少陰, 少陰而後厥陰, 傷寒爲病, 在氣則逆而非順, 自太陽而終厥陰也.”

36) 魯兆麟 等 点校. 難經集注. 沈阳,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pp.27-28. 『難經集注·卷之三』. “故三陰乃有離合,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開者, 司動靜之基. 闔者, 執禁固之權. 樞者, 主動轉之微, 三經不得相失”, “三陽之脈, 亦有離合.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開者, 司動靜之基. 闔者, 執禁固之權. 樞者, 明轉動之微. 三經不得相失, 今六陽已絕, 失其動靜之司, 弛其禁固之樞, 止其動轉之微, 三經相失. 故曰死也. 六陽者, 『素問』曰 上下經乃成六也.”

37) 滑壽의 원본 저작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讀素問鈔』라는 이름은 汪機가 『續素問鈔』의 序에서 “予讀滑伯仁氏所集素問鈔”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讀素問鈔』라는 書名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滑壽와 汪機의 구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汪機가 註解한 서적을 『續素問鈔』라고 書名을 구분하였다.

38) 崔仲平, 王耀廷 主校.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1. p.139.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陽司動靜之機, 故爲開. 陽明執禁固之權, 故爲闔. 少陽司動靜之微, 故爲樞.”

39) 李生紹 외 3人 点校. 珍本醫籍叢刊·經絡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p.74-75.

40) 다만 汪機의 『續素問鈔』의 開闔樞說은 明代 후기 開闔樞 연구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여 아래에서 따로 살펴 볼 예정이다.

41) 陳婷. 滑壽生平与著述考略. 北京中醫. 2004. Vol23(4). p.243.

王冰의 주해를 그대로 인용⁴²⁾한 것과 달리 關闔樞에 대한 내용을 補註하였다.⁴³⁾ 이에 여러 판본을 찾던 중 『續修四庫全書』의 영인본을 주목하게 되었다. 다른 책들이 ‘開’와 ‘關’을 혼용한 것과 달리 ‘開’를 모두 ‘關’으로 표기하고 있는 판본으로 추가적인 서지학적 연구가 필요하나 우선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續修四庫全書』의 영인본에서는 註解뿐만 아니라 經文까지 ‘太陽爲開’가 아닌 ‘太陽爲關’으로 되어 있는데 汪機가 실제로 ‘關’으로 기록한 것인지, 『續修四庫全書』를 편찬하는 과정에서의 誤記 또는 校正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汪機의 續註에서 ‘關, 闔, 樞’라고 표기한 부분 및 『靈樞』를 인용할 때 ‘太陽爲關’과 ‘開折’이 아닌 ‘關折’로 인용한 부분⁴⁴⁾, ‘愚謂’ 다음에 ‘太陽爲關’이라고 표현한 부분 및 ‘門之關, 門之闔, 門之樞轉動’이라고 한 부분⁴⁵⁾을 볼 때 단순한 誤記가 아니라 汪機가 의도적으로 ‘關’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⁴⁶⁾

조금 더 추론해보자면 汪機의 경우 滑壽에 비하여 校正에 적극적이었는데, 『新校正』과 『甲乙經』, 『太素』를 기준으로 校正을 하였고 그 기록을 남겼다. 그 중 『太素』는 楊上善의 說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던 점과 楊上善의 說을 따라 關闔樞를 門에 비유한 점을 볼 때 汪機가 상당히 중요하게 참고한 底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太素』에는 ‘關’으로 기록되어 있어 汪機 또한 ‘關’으로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靈樞』를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靈樞』와 거의 같은 내용이어서 그가 가진 底本들은 꽤 수준이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⁴⁷⁾ 이를 토대로 新校正에서 “按『九墟』‘太陽爲關, 陽明爲闔, 少陽爲樞. …….’ 『甲乙經』同.”이라고 한 부분을 보았을 때, 『九墟』같이 실전되었다고 일컬어지는 ‘關’으로 기록된 판본을 汪機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汪機가 아무런 언급없이 ‘關’으로 인용한 문구는 新校正이 교정한 『素問·陰陽離合論』의 문장이 아니라 『太素』나 『靈樞·根結』을 토대로 글을 옮기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關’으로 표기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약 汪機가 ‘開’를 ‘關’으로 校正하였다면 다른 경우와 같이 校正 사실을 반드시 따로 기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續修四庫全書』를 편찬한 편집인들도 校正하였다면 따로 그 사실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汪機는 關闔樞에 대하여 三陰三陽의 表裏中の 개념을 도입하였다. ‘太陽居表’, ‘少陽居中’, ‘陽明居裏’ 같은 표현은 후대 關闔樞論의 공간적 개념에 대한 초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중요한 발전 과정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關闔樞의 작용을 ‘營衛流於外者’, ‘營衛守於內者’, ‘營衛出入內外’라고 해석한 점은 王冰과 楊上善의 설을 조

42) 王緒齋, 毛雪靜 点校. 读素问钞.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p.22. “太陽爲開 (所以司動靜之機), 陽明爲闔 (所以執禁固之權), 少陽爲樞 (所以主動靜之微) ……” 『續修四庫全書』에서는 經文에 해당하는 ‘太陽爲開’가 ‘太陽爲關’으로 표기되어 있다.

43) 汪機가 註解한 부분인 ‘續註’ 또는 ‘愚謂’라고 표기된 부분에서만 關闔樞說이 기록되어 있다.

44) 王緒齋, 毛雪靜 点校. 读素问钞.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p.11. “[續]關闔樞者言三陽之氣, 多少不等, 動用殊也. 按『靈樞·根結篇』曰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故關折則因節瀆而暴病起矣. 故暴病者取之太陽, 潰者皮肉宛焦而弱也. 闔折則氣無息而痿疾起矣. 故痿疾者, 取之陽明. 無所止息者, 眞氣稽留邪氣居之也. 樞折則骨搖而不安於地. 故骨搖者, 取之少陽. 骨搖者, 節緩而不收也.” - 『續修四庫全書』에서는 『靈樞·根結』을 인용한 부분도 ‘太陽爲開’를 ‘太陽爲關’으로 표기하고 있다.

45) 王緒齋, 毛雪靜 点校. 读素问钞.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pp.12-13. “愚謂太陽爲關, 至命曰一陽一節. 蓋言太陽居表, 在於人身如門之關, 使營衛流於外者固. 陽明居裏, 在於人身如門之闔, 使營衛守於內者固. 少陽居中, 在於人身如門之樞, 轉動由之, 使營衛出入內外也.” 上揭書에서는 ‘陽明居裏’는 ‘陽明主裏’로 표기되어 있는데 『續修四庫全書』에서는 ‘居’라고 되어 있고 앞뒤 문장 또한 ‘居’로 표기하는 것이 문리에 맞다고 보아 ‘主’를 ‘居’로 校正하였다. ‘愚謂’ 이후 내용은 모두 汪機의 補註이다.

46) 王緒齋, 毛雪靜 点校. 读素问钞.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p.13. “常三經幹系如此, 是以不得相失也. 何以見之, 分而言之, 三陽雖有表裏之殊, 概而言之, 則三陰俱屬於裏,

三陽俱屬於表. 而脈浮若浮而不至於虛, 搏而有胃氣, 者乃三陽齊一, 各司所守而不相失. 故太陽雖爲關, 有邪莫能入. 陽明雖爲闔, 無邪之可閉. 少陽雖爲樞, 其邪安從而出入進退哉. 後三陰仿此. 『陰陽離合論』”

47) 祖父와 父 모두 名醫로 이름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汪機는 양질의 서적을 확보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으며 그의 학풍 또한 여러 의가들의 장점을 집대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금 더 한의학에 맞게 가다듬었다고 볼 수 있는데 ‘營衛’라는 용어는 汪機가 『靈樞』의 학설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汪機의 內外出入 개념은 후대에도 많이 응용되었다.

(2) 馬蒔

馬蒔는 서두에 皇甫謐이 『靈樞』를 『鍼經』으로 이름 지은 것을 비판하면서 『靈樞』의 ‘樞’를 門戶에 비유하였다. ‘樞’에는 闔關이 이어져 있다⁴⁸⁾고 하여 『靈樞』의 書名을 開闔樞의 구조로 설명하였다. 馬蒔의 開闔樞論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太陽을 陽之表이자 出하는 것으로, 陽明을 陽之中이자 入하는 것으로, 少陽을 陽之裏이자 立하는 것으로, 太陰은 陰之外이자 出하는 것으로, 厥陰은 陰之盡이자 入하는 것으로, 少陰은 陰之中이자 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⁴⁹⁾⁵⁰⁾ 少陽이 陽之裏인 것은 太陽, 陽明에 비해서 내측인 것이지 少陽 또한 在外한다고 부연하였는데 陽은 表에서 主內하고 陰은 裏에서 主出하여 서로 表裏相須의 理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⁵¹⁾ 『靈樞·根結』⁵²⁾에 나오는 ‘折

關敗樞, 開闔而走’의 ‘關’에 대해서는 ‘關者, 是有關乃所以開闔也.’라고 하여 關門의 뜻을 취했는데 太陽의 開는 關門이 열리는 것이고 陽明의 闔은 關門이 닫히는 것으로, 少陽은 關門의 지도리로 보았다.⁵³⁾ 三陰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⁵⁴⁾ 開折, 闔折, 樞折을 關之開折, 關之闔折, 關之樞折로 보았다. 『素問·皮部論』에서는 ‘關樞’의 ‘關’에 대해서는 ‘關者闔也.’라고 하여 반대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에 ‘開’는 ‘表之表’의 뜻을 취한 것이고 ‘關’은 “此對少陽而言耳.”라고 하여 少陽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른 작용이라고 보았다.⁵⁵⁾

『素問·熱論』에서는 表裏의 層次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표현하여 太陽이 제일 외측이 되고 陽明, 少陽 순으로 내측이 되어 表部를 이루고 厥陰이 가장 내측이 되어 少陰, 太陰순으로 외측이 되어 裏部가 된다고 하였다.⁵⁶⁾ 이에 傷寒의 邪氣는 ‘自太陽以入陽明’, ‘自陽明以入少陽’, ‘自少陽以入太陰’, ‘自太陰以入少陰’, ‘自少陰以入厥陰’의 순으로 전변된다고 하였는데 厥陰에서 다시 太陽으로 전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⁵⁷⁾ 종합해 보면 馬蒔는 開闔樞의 공간

48) 田代华 主校. 黄帝内经灵枢注证发微.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p.1. “然謂之曰‘靈樞’者, 正以樞爲門戶, 闔關所繫, 而靈乃至神至元之稱, 此書之功, 何以異是!”

49)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译丛书·黄帝内经素问注证发微.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1999. p.60. “是故三陽經之離合也. 其離有太陽陽明少陽之分, 然太陽者三陽也, 爲陽之表, 其義曰開. 陽明者二陽也, 爲陽之中, 其義曰闔. 少陽者一陽也, 爲陽之裏, 其義曰樞. 非樞則無所立, 非闔則無所入, 非開則無所出, 誠離之不能以無合也.”

50)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译丛书·黄帝内经素问注证发微.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1999. p.61. “然太陰者三陰也, 爲陰之外, 其義爲開. 厥陰者一陰也, 爲陰之盡, 其義爲闔. 少陰者二陰也, 爲陰之中, 其義爲樞. 非樞則無以主, 非闔則無所入, 非開則無所出, 誠離之不能以無合也.”

51)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译丛书·黄帝内经素问注证发微.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1999. p.335. “故在陽者主內, 少陽爲一陽而在外, 陽明爲二陽, 太陽爲三陽, 則此少陽所主在內也. 其心包絡爲三焦之裏, 肝爲膽之裏, 主出以應于少陽, 而又滲灌於內, 是表裏相須之理, 宜然也. 推之諸經, 皆如此耳.”

52)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译丛书·黄帝内经素问注证发微.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1999. p.58. 『素問·陰陽離合論』에서는 『素問·陰陽離合論』이 『靈樞·根結』과 서로 表裏관계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陰陽者, 陰經陽經也. 其義論離合之數, 故名篇, 此與『靈樞·根結篇相爲表裏.”

53) 田代华 主校. 黄帝内经灵枢注证发微.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p.39. “太陽爲三陽, 最在表, 故爲關之開. 陽明爲二陽, 居陽之中, 故爲關之闔. 少陽爲一陽, 最在裏, 故爲關之樞.”

54) 田代华 主校. 黄帝内经灵枢注证发微.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p.40. “夫太陰爲三陰, 爲陰之表, 故爲關之開. 厥陰爲一陰, 居陰之裏, 故爲關之闔. 少陰爲二陰, 居陰之中, 故爲關之樞.”

55) 田代华 主校. 黄帝内经灵枢注证发微.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p.40. “陰陽離合論以陽明爲闔, 太陽爲開, 而此以太陽爲關, 關者闔也. 蓋就表之表而言, 而此對少陽而言耳.”

56)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译丛书·黄帝内经素问注证发微.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1999. p.211. “人之一身, 三陽爲表, 三陰爲裏. 其巨陽爲三陽, 最在外, 陽明爲二陽, 在太陽之內, 少陽爲一陽, 在陽明之內, 此三陽者爲表也. 其太陰爲三陰, 在少陰之內, 少陰爲二陰, 在太陰之內, 厥陰爲一陰, 在二陰之內, 此三陰者爲裏也.”

57)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译丛书·黄帝内经素问注证发微.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1999. p.212. “本篇與張仲景『傷寒論』原無此義, 乃成無己註釋之謬. 蓋三陽爲表, 三陰爲裏, 自太陽以至厥陰, 猶人入戶升堂以入於室矣. 厥陰復出, 傳於太陽, 奈有二陰三陰, 一陽二陽以隔之, 豈有遽出而傳之太陽之理?”

적인 개념을 『素問·熱論』을 기준으로 삼아 陽明이 陽之中, 少陽이 陽之裏가 된다고 보았다. 이는 『傷寒論』에서 少陽이 半表半裏, 陽明이 裏인 것과 다르고 汪機의 表裏中과도 다르지만 開闔樞를 傷寒熱病에 응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吳崑

吳崑의 경우 馬蒔와는 달리 후대 傷寒學派의 表裏半表半裏와도 유사한 개념으로 開闔樞를 설명하였다. 太陽이 表에 있어 陽氣를 敷暢하고 陽明이 裏에 있어 陽氣를 受納하고 少陽이 表裏之間에 있어 陽氣를 轉輸한다⁵⁸⁾는 개념은 후대에서도 계속 사용되었다. 三陰에 대해서는 위치적인 개념보다는 생리·병리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太陰은 中에 있어 陰氣를 敷布하고 厥陰은 盡陰으로 絕陰之氣를 受納한다고 보았다. 少陰은 腎이 藏精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脾(太陰)와 肝(厥陰)이 開闔을 맡고 있다고 보았다. 『素問·皮部論』에서는 太陽에 해당하는 ‘關樞’의 ‘關’을 固衛라고 보았다.⁵⁹⁾ 『素問·陰陽離合論』의 ‘太陽在表, 敷暢陽氣’와 『素問·皮部論』에서 ‘關, 固衛也’, ‘太陽則約束, 而固衛其轉布之陽’라고 한 부분을 보면 일견 모순으로 보이는 太陽의 ‘開’와 ‘關’의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太陰의 ‘關蟄’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선보이는데 ‘關’을 封으로 해석하여 이것이 ‘太陰爲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⁶⁰⁾ 이는 ‘太陰爲開’를 ‘太陰爲關’으로 표기한 부분으로 吳崑의 誤記라기 보다는 본인의 서학적 견해를 좀 더 확실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보

인다.⁶¹⁾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吳崑은 汪機의 說과 매우 유사한 表裏中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상한학과의 학설과도 일맥상통한다. 전체적인 내용상 開闔樞의 이론적 기반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太陰爲關’이라고 한 표현은 눈여겨볼 만하다.

(4) 張景岳

張景岳은 『讀素問鈔』의 형식에 영향을 받아 『內經』을 주제별로 정리한 『類經』을 지었는데 『類經』에서 몇 군데 직접 인용한 부분⁶²⁾(63)을 보면 張景岳이 馬蒔와 吳崑의 저서를 직접 참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張景岳은 汪機와 馬蒔 및 吳崑의 說을 적절하게 융합하여 자신의 說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張景岳은 開闔樞에 대하여 太陽의 開가 陽氣를 밖으로 발산하는 것으로, 陽明의 闔이 陽氣를 안으로 축적하는 것으로, 少陽의 樞를 陽氣가 表裏의 사이에 있으면서 出入할 수 있어 樞機와 같다고 하였다. 또한 『素問·陰陽離合論』에 나오는 出地, 未出地에서 의미를 가져와 開闔樞를 일종의 上下中 구역의 개념으로도 보았다.⁶⁴⁾ 그리고 太陰은 陰分之表, 厥陰은 陰分之裏, 少陰은 陰分之中에 거처한다고 보고 三陰의 開闔樞 또한 出, 入, 出入之間으로 그 작용을 해석하였다.⁶⁵⁾ 이것은

58) 孫國中, 方向紅 点校. 黃帝內經素問名家評注選刊·黃帝內經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34. “一行于表, 一行于里, 謂之離. 陰陽配偶謂之合, 言以上是三陽之離合也. 太陽在表, 敷暢陽氣, 謂之開. 陽明在里, 受納陽氣, 謂之闔. 少陽在于表裏之間, 轉輸陽氣, 猶樞軸焉, 故謂之樞.”

59) 孫國中, 方向紅 点校. 黃帝內經素問名家評注選刊·黃帝內經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p.229-230. “關, 固衛也. 少陽爲樞, 轉布陽氣. 太陽則約束, 而固衛其轉布之陽, 故曰關樞.”

60) 孫國中, 方向紅 点校. 黃帝內經素問名家評注選刊·黃帝內經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240. “關, 封也. 所謂太陰爲關, 是也. 蟄, 蟄蟲也. 蓋太陰者, 裏也. 裏, 子也. 十一月, 萬物氣皆藏於中, 猶封蟄也.”

61) “關, 封也. 所謂太陰爲關是也.”라고 한 것에 대해서 丹波元簡은 “簡按陰陽離合論, 太陰爲開, 而吳云爲關誤也.”라고 하여 吳崑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62)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1. “故自後醫家皆宗其說, 而近者玄台馬氏駁之曰 男女之精, 皆可以天癸稱. 今王注以女子之天癸爲血, 則男子之天癸亦爲血耶?”

63)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4. “吳氏曰 人身體中之氣, 猶雲霧也. 體中氣化則通調水道, 下輸膀胱. 若體中之氣不化, 則不能通調水道, 下輸膀胱, 而失降下之令, 猶之白露不降矣.”

64)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0. “太陽爲開, 謂陽氣發於外, 爲三陽之表也. 陽明爲闔, 謂陽氣蓄於內, 爲三陽之裏也. 少陽爲樞, 謂陽氣在表裏之間, 可出可入, 如樞機也. 然開闔樞者, 有上下中之分, 亦如上文出地未出地之義, 而合乎天地之氣也.”

65)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1. “太陰爲開, 居陰分之表也. 厥陰爲闔, 居

汪機와 馬蒔의 說에서 出入 개념을 따오고 吳崑의 說에서 表裏中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素問·皮部論』에서는 ‘關樞’의 ‘關’을 衛固의 의미로 보았는데, 少陽이 中에서 陽氣를 展布할 때에 太陽은 그 氣를 지키고 단단히 하여 밖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⁶⁶⁾ 太陰도 이와 유사하게 ‘關蟄’의 ‘關’을 ‘固於外’로 보고 ‘蟄’은 ‘伏於中’으로 해석하여 陰은 臟을 주관하고 太陰은 이를 지키는다고 해석하였다.⁶⁷⁾ 이에 대하여 張景岳은 關과 開를 ‘辭異義同’라 하였다. 이것은 吳崑의 說과 거의 같다. 추가된 점은 三陰三陽 중에 陽明과 厥陰은 闔으로서 蓄과 入의 작용에 의해 盛해진다고 설명한 점이다.⁶⁸⁾ 『靈樞·根結』에서도 表裏之間과 유사한 半表半裏로 표현하였는데 吳崑의 說을 좀더 상세하게 발전시켜 開闔樞의 病證에 대해 설명하였다.⁶⁹⁾ 또한 張

景岳은 開闔樞에 대하여 內外를 밝혀 辨證施治를 구분하는 것⁷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開闔樞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것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종합적으로 張景岳은 기존에 존재하던 공간의 개념을 잘 다듬고 內外出入의 관점을 보태어 開闔樞論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清代 이후 開闔樞論

清代 이후에는 학파의 형성과 교류가 활발해져 더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 그 중 張志聰과 高士宗, 柯琴의 說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張志聰

張志聰은 張景岳의 開闔樞論과 유사하게 “開主外出, 闔主內入, 樞主外內之間.”라고 보았는데, 여기에 「運氣篇」의 三陰三陽에 대한 내용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素問至真要大論篇』의 내용을 참고하여 三陽의 경우 太陽은 巨陽, 盛陽之氣이므로 開를 주관한다고 보았고 陽明은 二陽之間에서 합하기 때문에 闔을 주관한다고 보았으며 少陽은 初出之氣이기 때문에 樞를 주관한다고 보았다.⁷¹⁾ 三陰의 경우는 太陰을 三陰, 陰之盛이므로 開를 주관한다고 보았고 厥陰은 兩陰이 交盡⁷²⁾하므로 闔을 주관한다고 보았으며, 少陰은 一陰之初生이므로 樞를 주관한다고 보았다.⁷³⁾ 이는 張志聰이 開闔樞의 작용을 三陰三陽의 성질로 해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三陰三陽을 陰陽之六氣로 표현하여 內로는 臟腑에 합하고 外로는 六經에 합하여 內外出入하는

陰分之中也。少陰爲樞，居陰分之中也，開者主出，闔者主入，樞者主出入之間，亦與三陽之義同。”

66)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3. “關，衛固也。少陽爲三陽之樞，展布陽氣於中。太陽則衛固其氣而約束於外，故曰關樞。陰陽離合論曰太陽爲開，辭異而義同也。”

67)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4. “關者，固於外。蟄者，伏於中。陰主臟而太陰衛之，故曰關蟄，此亦太陰爲開之義。”

68)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3. “蓋三陽之陽，惟陽明爲盛，故曰陽明。三陰之陰，惟厥陰爲盛，故曰交盡。”

69)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2. “開屬太陽，爲陽中之表，故氣在肌肉爲肉筋瀆也。表主在外，邪易入之，故多新暴病也。凡治開折之爲病者，當取太陽之經，因其虛實而補瀉之。所謂瀆者，其皮肉宛而弱，即消瘦幹枯之謂。闔屬陽明，爲陽中之裏，其氣在內，故闔折則氣無所止息也。陽明主潤宗筋，束骨而利機關，故爲痿疾。凡治闔折之爲病者，當取陽明之虛實而補瀉之。眞氣稽留，謂胃氣不行也，故邪居之，則氣上逆而痿生於下矣。樞屬少陽，爲三陽之半表半裏，故其氣在筋骨間。骨繇者，骨節縱緩不收，搖動不安於地也。凡治樞折之爲病者，當取少陽經之虛實而補瀉之。窮其本者，窮此三陽所在之本，或開或闔或樞以治之也。繇，搖同。開屬太陰，主於脾也。輸，營運也。膈，脂塞也。洞，如邪氣臟腑病形篇曰洞者，食不化，下噎還出也。脾傷則營運失職而爲是病，故當取之太陰，視其有餘不足以治之。然脾雖陰經，而開折者，則亦陰中之陽氣不足而生病也。闔屬厥陰，主於肝也。肝傷即氣絕於裏，而肺氣乘之，則爲悲。故闔折者當取足厥陰，視其有餘不足而治之。樞屬少陰，主於腎也。腎傷則脈有所結，而下焦有所不通。故樞折者當取足少陰，視其有餘不足而治之。然脈有結者，皆不足之所致。”

70)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類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72. “所謂開闔樞者，不過欲明內外而分其辨治之法也。”

71)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5. “太陽者，巨陽也。爲盛陽之氣，故主開。陽明合於二陽之間，故主闔。少陽乃初出之氣，故主樞。”

72) 『素問·陰陽類論』에서는 厥陰에 대하여 “陰中之少陽”，“陰盡而陽生”이라고 하였다.

73)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6. “太陰者，三陰也。爲陰之盛，故主開。厥陰爲兩陰之交盡，故主闔。少陰爲一陰之初生，故主樞。”

구조로 보았다.⁷⁴⁾ 三陰三陽의 出入은 經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때 ‘根結’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根結’중 三陽의 結이 있는 目, 鼻, 耳는 空竅로서 脈外로 통하는 통로이자 氣의 出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開闔樞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았다.⁷⁵⁾⁷⁶⁾

요약하면 張志聰은 三陰三陽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開闔樞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開闔樞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문인 『素問·著至教論』⁷⁷⁾과 『素問·示從容論』⁷⁸⁾에서도 開闔樞개념을 도입하여 註解하여 開闔樞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용하였다.

(2) 高士宗

高士宗의 경우 기존 연구가 開闔樞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과 달리 開闔樞간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하였다. 開闔樞는 陰陽과 유사하게 상호 對待 및 相合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서 開와 闔이 직접적인 對待를 이루고 開闔과 樞가 서로 이어지는

구조로 보았다.⁷⁹⁾⁸⁰⁾

『素問·皮部論』에서는 본문에 三陽이 陽明(害蜚), 少陽(樞持), 太陽(關樞)의 순서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 內에서 外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용하여 開闔樞작용이 內(陽明)에서 外(太陽)의 순서로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였다.⁸¹⁾ 이에 害蜚⁸²⁾, 樞持⁸³⁾, 關樞⁸⁴⁾의 의미를 모두 開闔樞의 순서로 치환하여 ‘由闔而樞, 樞而開’라고 표현하였다. 이 중 關樞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關樞의 關을 開闔樞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닌 ‘糸’의 뜻인 ‘잇다’로 보았다. 이에 關에 대하여 ‘樞轉始開, 開之糸於樞也.’라고 하여 開와 樞를 이어주는 의미로 파악하여 기존의 의가들이 關을 빗장으로 본 것과 상당히 다르게 해석하였다. 三陰의 경우 少陰(樞儒)⁸⁵⁾, 厥陰(害肩)⁸⁶⁾, 太陰(關蟄)⁸⁷⁾의 순서인데 이때는 樞가 經脈之氣의 陰陽과 水火를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가장 빠르다고 보았다.⁸⁸⁾ 『素問·皮部論』에 서

74) 郑林 主编. 张志聪医学全书·黄帝内经素问集注.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p.391. “此陰陽之六氣, 內合臟腑, 外合六經.”

75) 郑林 主编. 张志聪医学全书·黄帝内经素问集注.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p.391. “根者, 經氣相合而始生, 結者, 經氣相將而歸結於命門憲籠之間, 復從此而出於氣街, 走空竅而仍行於脈外也.”

76) 郑林 主编. 张志聪医学全书·黄帝内经素问集注.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p.391. “玉師曰 三陽之氣, 循經而出於氣街, 上於面而走空竅, 太陽精陽之氣, 上走於目而爲睛, 少陽之別氣, 走於耳而爲聽, 陽明之宗氣, 上出於鼻而爲鼻, 目之開闔, 耳之聽聞, 鼻之呼吸, 是三陽之氣, 上走於空竅, 而爲開闔樞也.”

77) 郑林 主编. 张志聪医学全书·黄帝内经素问集注.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p.345. 張志聰은 “此謂三陽直心, 坐不得起臥者, 便身全, 三陽之病.”에 대하여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起者, 太陽之主開也. 臥者, 陽明之主闔也. 坐者, 不起不臥, 少陽中樞之象也. 蓋言三陽之氣合, 則正當於心, 分出於形身, 則爲坐不得起臥之象.”이라고 註를 달았다.

78) 郑林 主编. 张志聪医学全书·黄帝内经素问集注.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p.347. “帝曰 夫從容之謂也. 夫年長則求之於腑, 年少則求之於經, 年壯則求之於臟.”에 대하여 “此言經脈之當求之於氣也. 夫從容者, 氣之謂也. 三陰者, 長女中女少女也. 太陰爲長女, 故當求之於腑, 腑陽而主開也. 少陰爲少女, 故當求之於經, 經氣內連臟腑, 外絡形身, 主外內出入之樞也. 厥陰處於兩陰中之交盡, 故爲中女, 是以求之於臟, 臟陰而主闔也. 此因三陰之氣, 而見於證之頭痛筋攣, 脈之浮弦而石, 故當求之於三陰氣之開闔樞. 若只論其脈證, 非從容之謂也.”라고 註를 달았다.

79)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p.52. “開闔樞者, 開則爲陽, 闔則爲陰, 舍合則不能爲開, 舍開則不能爲闔, 是陰陽互見, 開闔並呈也.”

80)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p.52. “自其離而復合者言之, 舍闔則不能開, 舍開則不能爲闔, 舍開闔, 則不能爲樞.”

81)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p.364. “經脈之氣, 從內達外, 由闔而樞, 樞而開. 故首論陽明之闔, 次論少陽之樞, 終論太陽之開.”

82)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p.364. “陽明之陽, 行身之前而主闔. 闔則不開, 有害於飛, 故名曰害蜚, 猶開也.”

83)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p.365. “少陽之陽, 行身之側, 而主樞, 故名曰樞持, 持猶主也.”

84)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p.365. “太陽之陽, 行身之背, 而主開, 故名曰關樞, 關, 猶系也. 樞轉始開, 開之糸於樞也.”

85)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p.365. “少陰之陰, 從而上, 注胸中而止, 樞轉神機, 區別水火, 故名曰樞儒. 儒, 猶區也.”

86)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p.366. “心主之陰, 起於胸中, 而主闔, 闔則不能外任, 故名曰害肩. 肩, 猶任也.”

87)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1. p.366. “太陰之陰, 循足脛, 交出厥陰之前, 而主開, 故名曰關蟄, 蟄, 猶藏也. 藏而後開, 開之關於蟄也.”

88)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1. p.365. “經脈之氣, 有陽有陰, 樞爲之主. 故先論少

술된 三陰三陽의 나열 순서를 開闔樞의 작용과정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開闔樞 사이의 관계를 논하였다는 점만큼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柯琴

柯琴의 경우 『傷寒論翼』에서 기존 의가들이 三陰三陽을 經絡에 국한된 설명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六經地面說을 주창하여 六經의 개념을 확대하고 이를 開闔樞의 작용으로 보았다. 開闔樞論의 관점에서 보자면 汪機, 吳昆, 張景岳으로 이어지는 開闔樞의 공간적인 개념을 계승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太陽은 開하기 때문에 主表하고 脈浮, 惡寒, 頭項強痛을 提綱으로 삼았고 陽明은 闔이 되기 때문에 主裏하며 胃實을 提綱으로 삼았다. 少陽과 少陰은 主半表半裏하나, 少陽은 陽樞이기 때문에 半表半裏症 중에 半表症에 속하는 口苦, 目眩이 提綱이 되고 少陰은 陰樞이기 때문에 半裏症에 속하는 欲寐不寐, 欲吐不吐가 提綱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柯琴의 說은 開闔樞를 『內經』에 의지하지 않고 『傷寒論』의 六經病 提綱과 바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傷寒論注』에서는 六經에 따른 脈證과 이를 대표하는 처방을 토대로 설명하였다. 그 중 太陽脈證을 예로 들자면 六經에 비록 각각 表症이 있더라도 오직 太陽만이 表를 주관한다고 보았다.⁸⁹⁾ 後에 麻黃湯證을 주로 風寒의 邪氣에 의해 表部가 막힌 것⁹⁰⁾으로 보고 이를 太陽病의 提綱으로 선정하였는데 麻黃湯을 太陽病을 다스리는 開法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으로 꼽았다.⁹¹⁾ 더불어 桂枝湯證에서는 太陽이 表症을 통솔하나 桂枝湯은 外症之虛를 주관한다고 하였다.⁹²⁾ 즉 太陽의 開를 ‘열다’로만 보기보다 開가

지나쳐서 생긴 虛證의 개념을 첨가하여 적절한 閉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太陰脈證에서는 太陰이 三陰의 裏로 대부분의 提綱이 裏之陰證에 속하지만⁹³⁾ 太陰은 開를 주관하므로 완전히 裏만 주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⁹⁴⁾ 이에 太陰을 裏之表證, 桂枝湯表之裏藥으로 설명하였다.⁹⁵⁾ 즉 開라고 하여도 무조건 表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傷寒論』의 表, 裏, 半表半裏 개념에 맞추어 해석하였다. 비록 ‘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開’와 반대되는 ‘閉’의 작용을 설정함으로써 ‘關’과 유사한 내용을 湯證으로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柯琴은 六經地面說을 주창하여 六經의 개념을 經絡說에서 地面說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開闔樞의 작용을 응용하였다. 기존의 開闔樞의 공간적 의미가 실제 임상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4) 石壽棠

石壽棠은 高士宗이 開闔樞간의 관계를 고찰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樞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醫原·樞機論』에서 樞를 ‘門戶之樞’, ‘陰陽開闔之轉機’라고 하여 開闔樞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 少陰은 ‘陰之初生’⁹⁶⁾으로 보고 三陰의 순서를 ‘由少陰而太陰, 由太陰而厥陰’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太陰은 少陰樞의 작용을 얻어 太陰脾土는 ‘散精以升於上’하고 太陰肺金은 ‘布精以降於下’하여 升降하게 되는데 이를 ‘開’라고 칭하였

陰之樞, 次論厥陰之闔, 終論太陰之開.”

89) 柯琴 著, 안영민 譯. 傷寒論注. 서울. 한미의학. 2012. p.25. “六經雖各有表症, 惟太陽主表, 故表症·表脈, 獨太陽得其全.”

90) 柯琴 著, 안영민 譯. 傷寒論注. 서울. 한미의학. 2012. p.77. “太陽主一身之表, 風寒外束, 陽氣不伸, 故一身盡疼.” “風寒客於人則皮毛閉, 故無汗.”

91) 柯琴 著, 안영민 譯. 傷寒論注. 서울. 한미의학. 2012. p.77. “太陽爲開, 立麻黃湯以開之.”

92) 柯琴 著, 안영민 譯. 傷寒論注. 서울. 한미의학. 2012. p.35. “太陽主表, 表症鹹統於太陽. 然必脈浮弱者, 可用此解外. 如但浮不弱, 或浮而緊者, 便是麻黃症. 要知本方只主外症之虛者.”

93) 柯琴 著, 안영민 譯. 傷寒論注. 서울. 한미의학. 2012. p.285. “陽明三陽之裏, 故提綱屬裏之陽證. 太陰三陰之裏, 故提綱皆裏之陰證.”

94) 柯琴 著, 안영민 譯. 傷寒論注. 서울. 한미의학. 2012. p.289. “太陰主裏, 故提綱皆屬裏證. 然太陰主開, 不全主裏也.”

95) 柯琴 著, 안영민 譯. 傷寒論注. 서울. 한미의학. 2012. p.291. “但浮脈是麻黃脈, 沉脈不是桂枝證, 而反用桂枝湯者, 以太陰是裏之表證, 桂枝是表之裏藥也.”

96) 王新華 點主. 醫原. 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21. “陰之初生爲少陰, 少陰, 稚陰也.”

다.97) 厥陰 역시 少陰樞의 작용을 얻어 厥陰心包絡은 ‘陰血以生’하고 厥陰肝木은 ‘陰血以藏’하게 된다고 보았다.98) 이를 종합하여 太陰, 厥陰의 開闔은 모두 少陰의 樞가 運用된 바로 생각하였다.99)

三陽의 경우 少陽은 厥陰의 陰極이 끝난 후 ‘陽之初生’100)으로 보고 三陽의 순서를 ‘由少陽而太陽, 由太陽而陽明’한다고 하였다. 이후 太陽은 少陽樞를 얻어 太陽膀胱은 ‘水道通調’하고 太陽小腸은 ‘食物變化, 通調變化’하게 된다고 보았다.101) 마지막으로 陽明은 少陽樞를 얻어 陽明胃腑는 ‘陽氣含納’하고 陽明大腸은 ‘陽氣收藏, 含納收藏’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102) 이를 종합하여 太陽, 陽明의 開闔은 모두 少陽의 樞가 運用된 바로 생각하였다.103) 이어 陽明을 陽의 마지막인 陽極으로 보고 陰의 처음인 少陰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104)

石壽棠은 선천병은 腎을 따라 생기고 후천병은 脾胃를 따라 생겨 결국 龍火의 병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一身無非火’라고 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少陰과 少陽의 ‘樞之不利’를 들었다. 이때 龍火는 無根之火이므로 寒으로 降之하면 熱이 더욱 치성하고 元氣가 망실된다고 하였다. 이에 ‘溫潤之, 鹹柔之’하여 少陰에 속하는 腎陽과 腎陰을 치료하면서 少陽에 속하는 肝膽도 함께 치료하였다.105)

종합하여 보면 石壽棠은 비록 高士宗과 三陰三陽의 순서는 다르지만 樞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樞를 중심으로 石壽棠이 생리와 병리를 개진한 점은 그 누구보다 開闔樞論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III. 결론

1. 王冰과 楊上善의 경우 開闔樞論의 초기 유형에 해당한다. 楊上善의 경우 開闔樞에 대하여 ‘關闔樞’라고 기록하였으며 ‘開’를 ‘關’으로 볼 수 있는 底本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關闔樞’를 ‘門’으로 비유한 방식은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王冰은 動靜의 작용으로 인하여 三分되는 원리를 설명하였는데 전체적인 뜻은 楊上善과 유사하였다. 이후 明代 중기까지는 王冰의 說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開闔樞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2. 明代 중기의 汪機의 『續素問鈔』에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關闔樞의 文意를 통해 그 생리작용은 營衛의 內外出入개념으로 설명하고 작용범위로 表裏中개념을 설정하였다. 汪機의 營衛說은 후대에 이어지지 못했지만 內外出入과 表裏中의 개념은 후대 의가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3. 明代 말기에 이르러 馬蒔, 吳崑, 張景岳이 開闔樞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清代의 開闔樞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였다. 馬蒔와 吳崑은 둘다 『傷寒論』의 六經辨證과 表裏層次의 개념을 응용하였으나 내용상 차이가 있다. 馬蒔는 『素問·熱論』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여 傷寒論의

97)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22. “蓋太陰脾土, 得此樞而散精以升於上. 太陰肺金, 得此樞而布精以降於下, 能升能降, 故謂之開.”
98)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22. “由是厥陰心包絡, 得此樞而陰血以生. 厥陰肝木, 得此樞而陰血以藏, 以生以藏, 故謂之闔.”
99)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22. “是太陰厥陰之開闔, 皆少陰之樞所默運者也.”
100)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22. “厥陰爲陰之極, 陰極則陽生, 而陰轉入於陽, 陽之初生爲少陽, 少陽, 稚陽也.”
101)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22. “蓋太陽膀胱, 得此樞而水道通調. 太陽小腸, 得此樞而食物變化, 通調變化, 故謂之開.”
102)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22. “由是陽明胃腑, 得此樞而陽氣含納. 陽明大腸, 得此樞而陽氣收藏, 含納收藏, 故謂之闔.”
103)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22. “是太陽陽明之開闔, 皆少陽之樞所默運者也.”
104)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22. “陽明爲陽之極, 陽極則陰生, 而陽又轉入於陰.”

105)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pp.22-23. “病先天則從腎起, 病後天則從脾胃起. 脾胃病則土不生金而金敗, 金敗則水衰, 水衰則木枯, 木枯則火熾, 火熾則水益涸, 水涸則龍火起, 龍火起而風火雷火燥火亦相繼而起, 則一身無非火矣. 夫此火之來, 總由於樞之不利, 火即陽氣外越, 而不能根據附於陰者也. 若寒以降之, 則火益烈而元氣亡矣. 故欲其樞之利, 非溫潤之鹹柔之不可. 法當滋腎之陰, 納腎之陽, 蓋腎爲水火互根之臟, 腎陰足而後水濟火, 腎陽固而後氣歸精也. 法當養肝之血, 達膽之氣, 蓋肝膽爲東方震巽之木, 木之陰液不可耗, 木之生氣尤不可伐也. 知少陰少陽之爲樞, 而治法可悟矣.”

- 六經辨證의 순서와 같이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으로 層次를 나누었으며 吳崑은 汪機의 表裏中과 유사하게 少陽을 表裏之間에 배속하였다.
- 張景岳의 경우 馬蒞와 吳崑의 說을 집대성하여 후대 開闔樞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開闔樞의 內外出入의 개념과 表裏中의 개념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張景岳 이후에는 開闔樞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張志聰의 경우 「運氣篇」의 내용을 토대로 三陰三陽의 의미를 강조한 開闔樞論을 개진하였고 高士宗은 開闔樞간의 관계와 작용과정을 서술하였다. 石壽棠은 高士宗의 說에서 더 나아가 開闔樞간의 작용에서 樞를 중심으로 생리·병리를 설명하였다.
 - 柯琴의 경우는 開闔樞를 『傷寒論』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六經地面說의 기본 원리로 응용하였고 六經病의 提綱과 처방에 응용하여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開闔樞論을 실용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 역대 의가들의 연구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石壽棠과 柯琴의 경우처럼 開闔樞論은 한의학 생리, 병리 뿐만 아니라 임상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開闔樞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81075)

References

- 柯琴 著, 안영민 譯. 傷寒論注. 서울. 한미의학. 2012.
- 顧廷龙 主编. 续修四库全书·读素问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김준기, 최달영. 三陰三陽 表裏 關係의 構成原

- 理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5. Vol.16(1).
- 戴铭, 杨上善 『太素』 “门—关—枢”理论. 上海中医药杂志. 2000(1).
 - 鲁兆麟 等 点校. 难经集注. 辽宁科学技术出版社. 1997.
 - 陆费逵 总勘. 四部备要·内经素问. 上海. 中华书局. 1989.
 - 李锄. “开、闔、枢”与“关、闔、枢”辨. 上海中医药杂志. 1980(03).
 - 李宇航. 论四逆散开闔以运枢机. 北京中医药大学学报. 1998. Vol. 21(4).
 - 박찬국. 삼음삼양과 (三陰三陽) 기의 변화.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5. Vol.9.
 - 박찬국. 『소문(素門)』 「음양이합론(陰陽離合論)」을 중심으로 한 삼음삼양(三陰三陽) 연구.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2. Vol.6.
 - 徐培平, 符林春. 伤寒六经营卫观. 安徽中医学院学报. 2000. Vol. 19(6).
 - 徐湘亭. 论『素问』开闔枢与『太素』关闔枢在意义上的差别. 江苏中医杂志. 1983(2).
 - 孙国中, 方向红 点校. 黄帝内经吴注. 北京. 学苑出版社. 2001.
 - 杨力. 标本中气、开闔枢理论在『伤寒论』中的应用. 天津中医. 1987(8).
 - 王国辰 主编. 许叔微医学全书·伤寒九十论.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2006.
 - 王緒鰲, 毛雪静 点校. 读素问钞.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 王新华 点主. 医原. 南京. 江苏科学技术出版社. 1983.
 - 王洪图, 李云 增补点校. 黄帝内经注释丛书·黄帝内经太素.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0.
 - 王希哲, 李宝丽. “开闔枢”与“关闔枢”在『伤寒论』中的运用. 河南中医. 1995(6).
 - 于天星 按. 黄帝素问直解. 北京. 科学技术文献出版社. 2001.
 - 危北海. 对开闔枢问题的商榷. 浙江中医杂志.

- 1963(5).
22. 이용범. 관합추(關闔樞)의 조합원리 및 몇 가지 활용 예. 대한한의학회지. 2004. Vol.17(1).
 23. 이용범. 양상선의(楊上善) 삼음삼양(三陰三陽) 학설에 대한 연구 - 음양속성(陰陽屬性) 관합추(關闔樞) 기혈다소(氣血多少)를 중심으로.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6. Vol.10.
 - 24.李志庸 主编. 张景岳医学全书·類经.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25. 임진석. 음양이합론(陰陽離合論)의 삼음삼양(三陰三陽)과 개합추(開闔樞).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8. Vol.11(2).
 26. 장우창. 『소문(素問).음양이합론(陰陽離合論)』의 의학사상(醫學思想)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삼재적(三才的)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8. Vol.21(3).
 27. 田代华 主校. 黄帝内经灵枢注证发微.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8.
 28. 郑林 主编. 张志聪医学全书. 北京, 中国中医药出版社. 1999.
 29. 정창현. 삼음삼양(三陰三陽)의 개합추(開闔樞)에 대한 신지견(新知見) -"궤음위추(厥陰爲樞). 소음위합(少陰爲合)"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3. Vol.16(2).
 30. 조용주, 김진주. 개합추(開闔樞) 기능에 관한 연구(研究).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08. Vol.25(1)
 31. 陈婷. 滑寿生平与著述考略. 北京中医. 2004.
 32. 崔仲平, 王耀廷 主校. 古今医统大全. 北京, 人民卫生出版社. 1991.
 33. 胡显宜, 汪世平. 『内经』 开闔樞考辨. 四川中医. 2002. Vol. 20(8).
 34. 黄儒珍. 谈谈三阴三阳与开闔樞问题. 上海中医杂志. 1962(10).